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음 3월 22일) 제17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5·9 촛불대선 D-21

각 후보자-정당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북서도 대선 열전… 지지층 결집에 사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연호

국민의당 안철수, 전주 방문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도 각각 거리 유세전 벌여

민주당·국민의당 '전북 몫 찾기'에 열올려

각 정당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공개됐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5.9 촛불대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도내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일제히 대선 승리를 향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첫날 거리인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운동원들은 각각 파란색 비옷과 연두색 점퍼 차림으로 경기장 사거리에 뒤섞여 율동을 선보이며 서로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은희, 국주영은 도의원과 김명지 전주시의장, 김남규 의원 등이 파란색 당 유니폼을 입고 운동원들과 함께 문재인 후보를 연호하며 선거전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당에서도 정동영 국회의원과 최진호 도의원을 비롯해 전주시의원들이 안철수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출근길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오전 10시 전주시 여의동 호남제일문 인근에서 거리유세전을 펼쳤다.

바른정당 전북도당도 이날 같은 시간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하늘색 유니폼 차림으로 유승민 후보를 알리는데 주력했고 정의당도 도당 당직자들과 운동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통로사거리에서 전북도 선대본부 출범식을 겸한 출근길 인사를 벌였다.

특히 도내 여론조사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대본 출정식과 함께 '전북 몫 찾기'에도 열을 올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전북선대본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 든 도민들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의 시작"이라며 전북을 희망의 미래로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춘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장미대선이 아니다. 촛불이 외쳤던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촛불선거'"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비로소 촛불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 전북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1수도 6중심 80행복사업 공약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북은 그동안 지역차별과 소외를 당해왔다"며 "전주 혁신도시를 제3의 연기금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것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탄소산업 중추지역 조성 등 전북을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후 전주문화산업진흥원에서 안철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다가올 4차산업시대의 전초기지로 전북을 만들겠다"며 19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전북의 핵심공약으로는 백년먹거리 첨단농식품산업 육성과 백제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전통문화특화도시, 새만금 SOC 구축 및 4차산업 미래전략기지 조성,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신성장 동력 혁신도시 건설 등이 담겨 있다.

안 후보는 "가상현실(AR)과 증강현실(VR)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 및 창업활성화, 투자 마케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 전북도당은 18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정운천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과 함께 전북공약을 발표한다. /안재용 기자

국내 최초 상용차 종합 박람회 연다

현대 상용차가 국내 최초로 글로벌 규모의 상용차 종합 박람회를 개최한다.

현대자동차㈜는 5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킨텍스 야외전시장 및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상용차 고객 특성에 맞는 체험형 박람회 'Hyundai Truck & Bus Mega Fair(현대 트럭 &버스 메가페어, 이하 현대 메가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용차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상용차 종합 박람회의 콘셉트로 꾸며질 현대 메가페어는 현대자동차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상용차 시장에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내 관계자 및 해외 고객 등을 초청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현대자동차, 내달 25일부터 28일까지 '메가페어' 개최

25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진행될 '현대 트럭 & 버스 메가페어'의 개막식 및 언론 공개 행사에는 현대자동차가 내년 출시할 전기버스를 최초로 공개하고 친환경 상용 차량에 대한 개발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현대 메가페어에는 킨텍스 야외전시장에 9만9,173㎡(3만 평) 규모의 부지에 양산차 57대, 특장차 106대, 쏠라티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포함 신기술 9기 등 상용차 풀 라인업을 전시할 예정이며, 관람객이 주요 차종을 직접 시승해볼 수 있는 '주행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배치한 테마파크형 박람회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 메가페어는 5월 26일부터 일반 고객 대상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참가하는 기업은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특장업체(62개 社), 부품사(10개 社), 블루핸즈(83개) 등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북특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첫 성과'

생활가전기업 디앤티, 1억100만원 투자유치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하고, 시제품제작을 지원한 전북특구 스타트업 기업인 ㈜디앤티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총 34명으로부터 1억100만원 투자유치를 성공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제공의 '펀딩'을 합친 단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후원받는 방식이다.

이번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디앤티는 IBK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지난 3월 7일 시작했으며, 7일 종료시점까지 애초 목표한 1억원을 초과하는 1억100만원의 투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이는 기존의 후원, 기부, 대출형이 아닌,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받는 증권형 보통주 투자방식으로, 전북지역내 첫 번째 성공 사례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디앤티는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첫 번째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으로 세계 최초 살균수 생성 스마트 물걸레 청소기 '휴랩(HULAB)'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프리미엄 가전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특허등록 6건과 특허출원 11건 등을 보유한 특허 강소기업이기도 하다.

휴랩은 수돗물과 소금으로 강력한 천연 살균수를 생성해 폐렴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하는 전자동 스마트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로 기존 물걸레 청소기에 디자인과 기능을 보완해 강화마루나 나무마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디앤티는 차후 신기술을 적용한 타원 회전형 제품의 출시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북특구본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계기로 프리미엄 가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박근혜, 재판 넘겨졌다… 592억 뇌물죄 등 18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31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5번에 걸친 옥중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를 보강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그간 수사에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어, 5개 혐의가 늘어난 것이다.

추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네도록 한 것,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것 등 5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인 뇌물죄의 경우 제3자뇌물수수, 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등이 적용돼 전체 수뢰액은 59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367억원이며, 실수령액에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뉴시스